

7. '92年 上半期 資材·人力難 解消對策

資料提供：建設部

1. 지원 배경

- '90년 이후 주택건설 확대로 자재·인력난이 심화되어 '91. 7 신도시건설에 불량레미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자재파동을 겪은 바 있음.
- 최근 건설경기진정대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자재·인력수급대책으로 자재·인력난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기착공물량과 '92년 상반기 건축허가예상물량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자재·인력수급문제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임.
- '92년 건축성수기를 대비하여 비수기인 동절기에도 조립식 주택자재 생산설비를 계속 확충하여 '92년 상반기중 조립식 자재가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골재채취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잉여분의 비축이 가능하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융자할 계획임.

2. 조립식 주택설비 촉진자금 지원

- 지원목표: 조립식 주택자재의 조기생산 및 공급 촉진
- 융자금액: 500억원
- 융자조건: 연리 12%, 2년거치 3년할부 상환
- 융자대상 및 방법: '92년 1/4분기까지 조립식 주택자재 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쳐 생산규모에 따라 배정하며, 구체적인 융자절차는 한국주택은행의 조립식 주택설비자금 지원방법에 따름

3. 골재비축자금 지원

- 비축목표량: 약 1,000천m³(수도권 평균소요량의 10일분)
- 용자금액: 100억원
- 용자조건: 연리 10%, 1년 이내 정기상환
- 용자대상 및 방법: '92년 상반기까지 골재를 비축하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골재구입, 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70%까지 용자